



## 정국록 선생

정국록 선생은 1916년 12월 29일에 북한 평원군 평원읍 변천가정에서 출생하였다. 1923년 즉 선생이 7세 되는 해에 부모들을 따라 소련 원동변강에 이주하게 되었다. 원동변강 연해주에 도착한 정국록 선생은 1924년부터 초학교 입학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1928년에 초학교를 필하고 동년에 초중에 입학하여 1931년에 졸업한 후 1931년 가을에 원동변강에 유일하게 니콜스크-우투리스크 시에 있는 한인 사범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그 학교를 1934년에 졸업하고 원동변강의 수도인 하바롭스크 시에 파견되어 한인 고중에서 어문학교원으로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일하시었다.

이 당시 정국록 선생은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개성이 총명하고 인격이 있는 청년 인테리로서 전체 학생들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의 원동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한편 전체 하바롭스크 시에서 살고 있던 한인들의 위신 있는 선견 청년인물로 인정받았다. 정국록 선생은 언제나 한인들의 모임을 갖는 장소라면 제일 먼저 초청되어 그 모임에 한인들의 아픔 담은 문화전송을 보이기 위하여 예술공연

조직 진행하는 한편 자신의 예술적 출현도 한 품목 꼭 끼워<sup>우.</sup>  
 들군 하였다. 판공의 크다란 인기를 끈 정선생의 예술은 시장성이  
 었다. 정선생이 특별히 잘 내놓은 시들은: "나는 할 말을 못하고 벽  
 은 아득 대담로 반하다"와 "진달래의 노래," "동반구의 복판" "노베르  
 채도원" 등이었다. 정국록 선생은 어떻게 전체 자기 레자  
 들에게서, 전체 한민 관공들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서  
 하바롭스크 시 한인 고공에서 1년간 일하시고 1936년에  
 블라디워노스크 한인사대에 공부하러 떠나시었다. 정국록  
 선생의 하바롭스크 한인 고공에서 떠났은 그 고공 문화 청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선 교원들 중에는 정선생처럼  
 진고 문화예술적 재질을 갖춘 교원도 없었고 다만 학생 관공  
 의 예술적 장기와 참여관공을 지도하는 기교를 겸한 일제시대 이북한  
 무당어는 없었다. 한민들 중에는 1945년에 북한에 가서 한민당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리호복, 리사남(작은 순백) 김기석은 위두로이  
 연성만, 황만근, 김호봉, 김광진 등이 들어 있었으며 특별 장기를 소유한  
 한민들은 최규라, 한일타, 정익철, 박철동, 한글라아, 정두부 등이었다.  
 다음 1937년에 한민 사대 졸업생 들은 강정태, 박계보로키야,  
 박나팔나이 선생 등이 고공에 음모로써 학교 예술 청년사회의 잘  
 진행될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으나 이때 - 즉 1937년에:  
 전체 한민들에 대한 쓰말린적 반일적 한민이 시작되고 강제  
 주가 시작되자 한민 예술-문화가 그렇게도 개화되어 한민전  
 회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던 생활은 완전히 수탈 파괴되  
 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처단당할 한민 남여지, 여지없는 한민 후타들  
 을 화물차에 싣려 올 때에 하바롭스크 고공로 가자노 공화국 악주  
 쉐보코프, 가라부다크 구역, 부깃사이 홀으로 보내 되었으며  
 여기에 와서 부리는 한민 학교가 어니라 큰어 고공이 되고  
 되었다.

3.  
 1936년에 블라지워프도크 한인 사범대학에 입학한 정국록  
 선생은 1937년에 한민강회 이주와 관련되어, 까자노공화국으로  
 모로다에 대학과 함께 어귀하여 오게 되었다. 정 선생은 대학  
 에서 2년간 한국어로 공부하고 3년간은 영어로 공부하여 19  
 40년에 사내를 마감하고 까자노 공화국에 파견되어 4년간  
 집단농장 일하고 검리소에서 처음에는 문학교사로 다음 2년  
 간은 고공 고장으로 일하시었다. 문학교사 - 예술의 한 부분이며  
 더 한인 문화예술 기교를 갖춘 정국록 선생은 한인들의 문화의  
 또 다른 전회 예술 고양시키기 위하여 전한 원에 따라 선생  
 의 문화예술적 비약시키기 위한 상재를 없게 되고 자기  
 문화의 개화에 이진하려 함 빛나고 심리를 달성할 수 없었다. 선생  
 은 거처 귀하여 재능 고원어였고, 교원 집단의 행정적 간부  
 로 위선있게 사임하였을 뿐이었다.

정국록 선생은 조선의 해방되기까지 1945년 10월  
 초 4년 동안 군대에 소병되어 북한에 귀환한 소련 제 25군단  
 정치부에서 도청하기까지 1945년 10월 19일  
 년 10월 부터 1946 5월 까지 역임하시며 1946년 6월  
 에 북한에 내각 직속 고공지로 간부학교가 소련 25군단  
 정치부의 지도부에 조직하자 고공지의 세계 정치 지도  
 강좌의 상급 교원으로 1950년 3까지 일하시었다.  
 1950년 3월 부터 - 1951년 4월까지 평양에서  
 소련 25군단 정치부에서 발간한 소련군 신문 "소베트신보사"  
 지방 부장으로 일하시었다. 동신물은 소련의 정책을 북한  
 에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지도적-권위 있는 신문으로서  
 소련의 "변태이다" 비슷한 역할로 하였다. 소련 25군단  
 정치부가 정국록 선생을 신문사 계통에 전근시킨 것은 정선  
 생을 앞으로 출판물 계통의 지도적 간부로 발전시키려는

연으로

목적이었다. 정국록 선생은 비록 소련에서 준비된 간부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능통히 노유한 문학적 소질이 풍부한, 준비된 출판물 계층의 역군어 될수 있는 인물이었다. 정국록 선생은 한반도의 동쪽상반 -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북한의 국가정책을 대표하는 북한 신문 "민주조선" 주필로 1951년 12월에 임명되어서 1954년 1월까지 임하시였다. "민주조선"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동북까지 후퇴하여 들어가지도, 또 다시 평양에 귀환하여 반공호 북에서 출판하더라도 별로 정간함이 없어 계속-계속 출판되었다. 1954년에 넘어가게 되자 전쟁시기에 어려운 환경속에서 북한연변은 전쟁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조건들로 다개하고 하로 속히 전쟁이 끝나기만 원하시여서 일치단결하여 노력하였으나, 전쟁이 작 끝나자 사상적으로 화해 되면서 연변은 여러가지 집단으로 난후기 시작되었다. 이것은 연변이 어떻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당중앙 숙의 북가 어떻게 연변의 분위기를 뒤늦들어 서로-서로 그룹별 간 대립 식혀 놓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특히 1953년 7월에 북한의 당지도자 허카터를 암살하여 죽인다는 사람들로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것을 무시되 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연변을 파로 분단하고 다음은 사상적으로 즉 여러 지역별로 어리서 북한에 왔느냐에 따라 남한파, 연안파, 소련파, 지방파, 변방파 등으로 분별하였다. 허카터 전쟁이 끝나자 연변들에게는 불만이 많았으며, 여러가지 양면으로 노동당 정책을 반대하고 김일성수상에 대한 반대적 발언이 많았으니 시작하였다. 즉 "전쟁은 전체 연변들이 피눈물 내어 하였으나 그리 기쁨은 김일성이 혼자서 독점하였던" 등이다.

연변

이것은 김일성의 독재 정책을 반대한 것과, 개인 영웅주의, 그의 위화 정책과 그에 대한 개인 숭배 정책을 반대한 것이다. 소련에서의 스한린 모양으로, 좀 자라 보다 으름하면 죽어는 것이 김일성 증책이란 말이며, 그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허락으로 그에게 되살리었다는 것을 아시할 것이다.

정국록 선생은 1954년 2월에 교육성 차관으로 영전 되었다. 이것이 영전인가, 그렇지 아니면 조동인가 할 때에 두가지로 대답할 수 없다. 회령으로 볼 때에는 영전이나 교육성 차관 공쟁의 높은 직책이다. 그러나 "인민조선" 신문 주필직에서 교육성 차관에 조동이란 것은 말 내용 그대로 조동이 영전어 아니다. 단일 정치 체제가, 공화국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신문 주필, 이것은 이국 신업임에도 책임적인 직책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런 조동이 필요하였는가? 이것은 김일성의 간: 정책이다. 조선로동당은 사상검열이 시작되고 중요 단위 책임자들을 제 부하적 직위에 돌려 놓기 위하여서도 제 될 처음에는 좀 높은 직위에, 그러나 "보"자가 팔린 직위에 조동한다. 다음 눈서로 여기-저기 배치하였다고 허복에 내려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책임적 간부들을 강적할시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한다. 그러나 이것도 그 간부에게 아무런 책임감 재로라 없으시어 어렵게 하는 것이다. 정국록 선생은 교육성 부상직위에 약 11개월 계시다가 1955년 1월에는 개성 영전 단판 위원회 조종수 수석 대사로 조동되어 그 책임에서 1958년 1월까지 책임하시곤 소련 파를 모조리 청산하는 바칼에 4년 당하시곤 말미막 단계로 회북성 참사를 조동되어 1960년 말까지 근무하시다가 1961년 3월에 소련에 귀국하여 모스크바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연이로

고향당의 해방전에 참가하시고 그 당시 준비되고 모든 방면으로 보  
 아 성숙된 간부로써 조국의 발전 번영을 위하여 정국록 선생은  
 힘을 다하여 노력하시였다. 정국록 선생은 본래의 성격상으로  
 보아 아주 온유하시며 항상 사람들을 언저하게 맞이하였으며  
 누구에게나 큰소리로 냉대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북한 조동  
 당은 정 선생을 소련파니, 사대주의자니, 관료주의 종파분자니  
 하면서 이런 일자리 저런 일자리에 돌리다 맞서 맞대고  
 최후영 찬사로 내리 보내고도, 또 그 아래 더 내려가, 농촌  
 에 나가 한 일년간만 조동계급의 공선 음성으로 단련시키면  
 당은 관대히 취회하고 정 선생을 다시 중앙 고급지도 간부로 취  
 시킬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정 선생은 그 따위 거짓말을 듣지  
 않고 다시 소련에 귀국하게 되었다. 벌써 2월 2일에 들어선  
 정 선생은 자기 고향을 다시 떠나기 감당치 못했다. 본래  
 한복 1명 천읍에서 한성하러 오시되던 때에 고향을 떠나던  
 일이 후에 어물거리며 항상 환상하던 정 선생이 다시  
 자기 고향을 떠나기에 깊은 한숨도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정 선생은 북한을 떠날 때 그 깊은 언저적 조지  
 를 위한, 다시 꼭 돌아올 길로 알고 떠나셨다. 함달리는 활수  
 없는 길이었으나 소련에서 북한에 돌아와 일하시던 많은 천  
 구들이 벌써 4-5년전에 사상검토-간부청산 정책에 의해  
 더 자기 직책들에서 떨어지고 가정들을 데리고 하부 협동조  
 함에 내려가기는 하였으나 그중 한명도 다시 "관대한" 처  
 분을 받아 중앙에 올라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리하여  
 소련에 다시 돌아오는 길은 가족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  
 기 위한 길도 아닌 단 한길이었다. 함 미에 저리고 눈을 겨운 길  
 이었으나 달리는 활수없는 길이었다.

이  
 고  
 연  
 들

7.  
 모스크바에 도착한 정국록 선생은 조선공산당의 주선에  
 따라 이어 주학을 배정 받았으며 아이들의 학업 계속 문제, 부  
 민의 취직 문제로 다 해결 받았다 그러나 정 선생 자신의 취직  
 문제에 대하여서는 많이 생각하여 보았다. 우선 모스크바 많은  
 대학들의 외국어 강좌에서 많은 초청을 받았으나 거기에는 발  
 을 돌리지 않고, 그래도, 비록 외국, 모스크바에 없기는 하지만  
 조국에 좀 리로운 일을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런 방향은 책을 집  
 필하여 북한에 정학을 배정함에 나-남이 들어 내 높은 업에서,  
 간행출판물들에 현 정치에 대한 홍보의 형식으로 활약했고, 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도 활약하였다. 정국록 선생은 라  
 지오 방송국 한국어 방송부에 들어가 그의 책임자로, 즉 한국말 방송  
 부 책임자로 자기 생애 있어 막 순간까지 많은 일들을 하신였다.  
 정국록 선생은 조국의 기본 노선에서 활동하여 그릇된 사회주의  
 반연변적 김일성주의의 길로 걸고 있는 데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  
 으며, 조국의 흥일을 매 일 갖어 기다리시었다.  
 정국록 선생은 심장병으로 인하여 1988년 6월에 모스크바  
 에서 별세하시었다. 현재 정 선생의 사모님 김나탈리아  
 할머니는 계속 모스크바에서 자기 자손들과 함께 건  
 강히 보내시고 있다.

김나탈리아 사모님의 말씀에 따라  
 장영봉 기록, 모스크바, 1996년 5월 27일